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14일부터 고창 동립저수지에서 서식하던 가창오리 35만마리가 금강호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 가창오리 35만마리 북상... AI확산 우려

농축산부·환경부, 고창 동립저수지 금강호 이동 파악 '예의주시'

겨울 철새인 가창오리 수십만 마리가 고창 동립저수지에서 금강호 쪽으로 북상하면서 고병원성 AI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14일부터 고창 동립저수지에서 서식하던 가창오리 35만마리가 금강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겨울철 한반도로 상륙하는 가창오리는 동립저수지에서 일정 기간 지내다가 인근의 금강, 삼교 순으로 북상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오리는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배설물 등을 통해 바이러스를 배출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최근 AI가 진정 국면을 보이지만 바이러스 잠복기가 최장 20일인데다 가창오리까지 이동하고 있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가창오리 북상 시기를 맞아 이동 경로에 맞춰 철새도래지 주변 농가 소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고양이와 조류, 쥐 등이 가금농장에 들어올 경우 가금류 감염 위험이 있는 만큼 농장 주변에 생식회를 도포하는 한편 축사와 사료 보관 시설에 그물망 등 차단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AI 재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규정 위반시 처벌도 강화된다.

이미 방역당국은 GPS를 장착하지 않은 채 농가를 출입한 축산 관련 차량 등 30건을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AI 양성농가 중 신고 지연 등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11곳에 대해서는 보상금 추가 감액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에서는 정읍과 고창·부안·김제 지역에서 AI가 검출돼 115개 농가가 262만3,000마리의 오리와 닭을 살처분 했다.이인행기자/ih0082@hanmail.net